



즉시 배포용: 2022년 12월 12일

KATHY HOCHUL 주지사

## HOCHUL 주지사, 뉴욕주 인권국 산하 혐오편견방지팀 신설 발표

*새로운 팀은 지난 달 Hochul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에 따라 주 전역에서 다양성 이해 및 관용, 포용, 수용을 독려하는 캠페인 실시*

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인권국(New York 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)이 혐오편견방지팀(Hate and Bias Prevention Unit)을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해당 팀은 공공 교육 및 봉사 활동에 대한 주도적인 노력, 로컬 커뮤니티의 조기 경보 감지 시스템 역할, 편견 사건이 발생한 지역 및 커뮤니티로의 신속한 동원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. 혐오편견방지팀은 오늘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.

**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** "뉴욕주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 지역사회에서 혐오와 편견을 뿌리뽑을 것입니다. 우리는 지금 우리 주는 물론 전국에서 서서히 나타내고 있는 혐오 사건이 증가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며, 문제의 뿌리부터 해결할 것입니다."

**Antonio Delgado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** "우리는 무지, 공포, 혐오가 이제까지 우리가 일구어낸 성과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막을 것입니다. 지역사회 내, 주 전역에서 쌓아올린 협력관계는 사랑이 언제나 혐오를 이긴다는 자명한 진리를 다시 일깨워줍니다."

**Maria L. Imperial 인권국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** "피부색이나 성적 지향, 신념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은 안전하게 출근하고 취미 생활을 즐기며 종교 생활을 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. 새로운 팀은 평등한 기회와 접근성, 모두의 존엄이라는 미션을 뉴욕주에서 실현할 것입니다."

새로운 팀이 부여받은 임무의 일환으로, 인권국은 주 전역에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10개의 지역 협의체를 발족합니다. 이러한 협의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문제를 논의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조직하며 혐오 범죄 예방 및 지역사회 힐링 행사를 개최하며 갈등 해결 훈련을 실시하고 인권국 및 기타 유관 기관과 불만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합니다. 팀은 또한 신속 대응팀을 마련하여 편견이나 혐오로 고통받는 지역사회를 지원합니다.

혐오 및 편견 예방팀은 또한 새로운 팀은 지난 달 Hochul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에 따라 주 전역에서 다양성 이해 및 관용, 포용, 수용을 독려하는 [캠페인을 주 전역에서 실시](#)해야 합니다. 이러한 캠페인은 지방 정부, 지역사회 단체, 교육청, 종교 시설, 자선 단체, 재단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은 민간 단체 협력을 추진하며, 인터넷, 소셜 미디어, 기타 대중 접근이 쉬운 플랫폼에 게시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마련합니다. 인권국은 뉴욕주 경찰(New York State Police)과 협력하여 뉴욕 주민을 대상으로 뉴욕주 혐오범죄법에 대하여 교육을 진행합니다.

오늘의 발표는 주 전역에서 혐오와 폭력을 해결하겠다는 Hochul 주지사의 오랜 의지를 기반으로 합니다. 주지사는 비영리 및 지역사회 기반 단체가 혐오 범죄 및 테러의 대상이 되었을 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정부 및 연방 자금 [9,600만 달러](#)를 지원하고, 임출산 관련 병원 및 임신중절 서비스 제공자가 신념과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범죄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경우, 직원과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[1,000만 달러](#) 규모의 주정부 자금을 [임출산 진료 안전 프로그램\(Securing Reproductive Health Centers Program\)](#)을 통해 제공합니다. 또한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 서비스 사무국(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) 산하 국내테러방지팀(Domestic Terrorism Prevention Unit)을 신설하고 올해 초 버펄로 탑스마켓(Tops Market)에 대한 백인우월주의자 테러 이후 국내 테러 방지 계획 및 위험 평가관리팀 수립을 모색하는 데 주정부 보조금 [1,000만 달러](#)를 지원합니다.

인권국은 주 전역에서 연간 5,000건 이상의 개인 대상 차별 신고를 조사합니다. 인권국은 또한 조사를 시작하고 뉴욕주 차별금지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, 작년 인권국은 차별을 경험한 개인에 대한 보상금 [620만 달러](#) 이상을 확보했습니다. 인권국은 뉴욕주 경찰(New York State Police)과 협력하여 뉴욕 주민을 대상으로 뉴욕주 혐오범죄법에 대하여 교육을 진행합니다.

뉴욕주는 모든 시민들에게 “안전하고 생산적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평등한 기회”를 제공하는 곳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권법을 제정한 주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. [뉴욕주 인권국](#)은 인권법(Human Rights Law)에 따라 차별 철폐, 부정의 해결, 평등한 기회 보장, 접근, 존엄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.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데 관심이 있는 개인은 [DHR 웹사이트](#)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.

###

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: [www.governor.ny.gov](http://www.governor.ny.gov)  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[press.office@exec.ny.gov](mailto:press.office@exec.ny.gov) | 518.474.8418